

호스피스 영성(A Spirituality of the Hospice)

안창호 신부
예수성심 전교 수도회



호스피스(Hospice)의 어원은 중세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하루 밤 쉬어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숙소를 일컫던 말이다. 근래에 와서는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 주는 모든 봉사행위를 호스피스라 부른다. 좁은 의미로는 선종 봉사로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죽음과 거룩하고 평화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가족과 사후에도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봉사행위를 말한다.

성경 안에서의 호스피스 영성(A Spirituality of the Hospice)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호스피스 봉사에 대한 일반적 의미와 복음적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봉사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또한 상인이 손님에게 험값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장사하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물건을 값싸게 팔 때 봉사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음적 의미로는 아바드(히브리어),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다.」의 일과

관련이 많다. 디아코니아(희랍어)는 ‘식당에서 시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임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사용된다. 마태오 복음 25,31-46절 안에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 준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해준 것과 동일시한다.

루카 복음 10,29-37절 안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심하게 다쳐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때 쓰러진 사람을 보고, 사제도 레위인도 바쁨과 무관심 그리고 회피하기 위해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With compassion)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로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는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 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하고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다. 요즈음 같으면 1년에 한 번 휴가를 받아 여행 계획을 세운 후 노새와 함께 일정을 따라 이동 중이었다. 그런데 길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가엾은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을 본 후 사마리아 사람 마음 안에는 온통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 연민의 마음은 가엾은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다. 급하게 주위에 있는 가까운 여관으로 찾아가서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고는 이튿날의 임금을 수고에 대한 대가와 치료비로 지불한다. 그런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 올 때 더 든 비용이 있다면 갚

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여관에 도착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한 후 귀가 했을 것이다. 사제와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은 뺨뺨한 여행 일정을 제쳐 놓고 도와주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호스피스 영성(A Spirituality of the Hospice)의 기원이라 볼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날에 재현된다면 우리들은 어디까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고 묵상해 본다. 요즈음도 사제와 레위인처럼 못 본 척 하면서 길 반대편으로 지나치는 사람, 핸드폰 전화로 119에 신고한 후 그 자리를 뜨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와 달라 부탁하며 택시를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다 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병원에도 입원 시켜 놓고 병원비까지 지불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진행 할 수 있는지 묵상해 봄도 좋을 것이다.

길가에 쓰러진 강도를 본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한 행실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안에 살아있는 ‘연민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측은한 마음’이었다. 이 측은한 마음이 착한 행실, 즉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끌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조건 없는 봉사를 하라고 강조하신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 25,31-46절 안에, 최후의 심판 날에 하느님 나라를 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이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히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다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 pity(=feel sorry)는 단순한 동정심

* compassion은 깊은 동정심

Compassion은 단순한 동정심과 함께 더 깊은 동정심을 말한다. 단순한 동정심과 함께 실제로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을 느껴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 보는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연민의 마음처럼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내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배우자의 입장과 처지를 깊이 느껴 보는 것이다. 나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연민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스위스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헬렌 수녀는 한국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매일 방문하였다. 병상에 누워 목욕을 쉽게 할 수 없었던 자매에게 매일 배낭에 젖은 타월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환자의 몸을 닦아 주었다. 무엇이 이런 봉사를 하게 만들었는가? 그 원동력은 헬렌 수녀 마음 안에 있는 측은한 마음이다.

얼마 전에 하느님 나라에 가신 이태석 신부가 톤즈의 어린이와 한센병 환자를 위해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태석 신부 마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이다. 이 연민의 마음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끌었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거리에 있는 걸인들을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돌보아 주는 일은 수녀님의 마음 안에 늘 살아 움직이는 측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측은한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끈 것이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조건 없이 돌보며 도움이 되고자했던 봉사하는 마음이다.

우리도 가난한 이웃을 직접 돌봄으로서 그리스도의 연민을 지닌 마음을 실천해야한다.

예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셨다. “누가 억지로 오 리를 가져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마태 5,41)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한다.”(마르 9,35-36; 10,43-44)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봉사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베드로 전서 4,10-11)

성경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에 대해서도 말한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코린토 전서 9,17)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 8) 우리가 받은 모든 재능들은 주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이웃을 위해 거저 나누어 주어야한다. 이것이 봉사자의 마음 자세이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마태 10,10)고 말씀하심으로서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봉사정신임을

착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강조하신다.

매일 사제가 교우들과 드리는 미사 경문 안에,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하고 매일 주님께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여러 봉사하는 분들을 대표해서 사제가 대신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매일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 영성 안에 봉사자의 정신과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환자를 돌보면서 ‘내가 누구인가?’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세이다. 예컨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내려 주신 은총임이 틀림없다.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환자를 돌보며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작은 도구로 선택하여 환자를 돌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